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고정희 지음

보석 대신 ‘여왕의 꽃’ 튤립을 꽃고 파티에

문제 하나. 콜럼버스는 이 향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세계 역사를 바꿨다. 15세기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해에 성공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최고가로 거래됐고 이 물건의 교역으로 부자가 된 중세 부유한 상인들을 ‘XX자루’라고 불렀다.

문제 셋. 독일에서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약속을 펴크했을 때 “넌 의미없는 XXX다”라는 말을 한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 편에 섰던 이탈리아는 나중에 등을 돌렸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채소를 빔대 지금도 의미 없는 사람을 대신할 때 쓴다.

문제 셋. 1634년 네덜란드를 휩쓴 ‘투기 열풍’의 주인공으로, 어린 아이보다 작은데도 당시 집한 채 값을 거래됐다. 한때 ‘조물주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도 불리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일까. 책장을 넘길수록 느껴지는 식물의 존재감. 엄청나다. 인간의 시간 관념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식물의 역할이 놀라기만 하다.

조경학 전문가인 고정희씨가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를 통해 전하는 인류 문명사 곳곳에 뿌리내린 여러 식물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신선하다.

그저 산이나 들에 핀 식물이나 꽃 사진, 이름 정도를 알려주거나 어느 식물이 어디에 좋고 맛이 어떻고 어디에 사용하면 좋다는 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식물 생태, 형태, 자연사, 약리 등을 언급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식물이 인류사에 남긴 발자취까지 되짚어보게 흥미롭다. 그래서 쉽게 책장이 넘어가고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자는 인류사에 흔적을 남긴 대표적인 식물로 튤립을 들었다.

16세기 처음으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낸 튤립은 지금까지도 각국에서 ‘여왕의 꽃’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때는 꽃의 여왕을 뛰어넘어 ‘조물주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찬사도 받았다. 귀부인들이 값비싼 보석 대신, 튤립 부케를 가슴에 꽃고 파티에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튤립 부케는 보석 값과 맞먹었다고 한다.

특히 1634년 네덜란드에 광기에 가까운 튤립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 ‘섬파 아우구스투스’라는 줄무늬 튤립은 구근 한 개가 집 한 채 값에 거래됐을 정도다.

저자는 이렇게 튤립 열풍이 거센 데는 별난 특성이 한몫을 했다고 분석한다. 번식 속도가 엄청 느린데다, 빨간 튤립의 구근을 심더라도 이듬해 엉뚱한 꽃이 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특이한 돌연변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등 심는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려한 색의 꽃을 피우는 특성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감자에 얽힌 얘기도 재미있다. 인디언들이 미대륙에서 콜럼버스에게 베푼 선물인 감자, 사람이 먹기로 채우기 위해 ‘감자의 신’이 개입했다는 일부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에 대개근이 담긴 19세기, 감자 원산지인 미국으로 수백만의 농부와 노동자가 이민을 간 사례 등을 포함하며 설명해 상당히 솔직하다.

세상을 바꾼 후추 한 알도 흥미롭게 읽힌다. 크게 눈에 띄는 식물이 아닌데도, 더운 여름 육류를 저장하는데 필요했고 향도 좋아 인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 수요가 늘어나면서 값은 최고가로 뛰었고 후추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 여러 나라의 노력이 치열했다는 얘기도 재미있다. 커피나무신이나 옥수수를 신화와 연결해 살펴본다거나 감자, 토마토, 후추, 사탕수수처럼 엄연히 식물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부엌에서 각광받는 ‘주방 식물’로 변모한 과정을 조명하는 것도 재밌다.

서양과 동양 문화에 공존하는 식물로 꼽힌 진달래·복숭아나무·버드나무·연꽃 등에 대한 얘기를, 이들 식물이 서구와 동양 신화에 ‘겹치기 출연’하면서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과정도 흥미진진하다.

〈나무도시·1만68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약전, 흑산도 어민들 삶 속으로

‘자산어보 상·하’

오세영 지음

1801년 신유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국내 최초의 어보를 만드는 과정과 어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다. ‘소설 자산어보’는 개혁을 추진하다 노론 벽파에게 밀려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실학’을 펼칠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섬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간다.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과정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다.



‘베니스의 개성상인’, ‘만파식적’ 등 지난 1993년 이후 출판 역사소설만을 고집해온 오세영씨의 소설, 어부와 잡녀들의 일상사, 표류민들의 애환, 흥경래의 난, 남성 우위 및 봉건제 신분 사회의 한계와 특성 등 조선 후기 어지러웠던 사회상을 농민과 어민들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식인 정약전을 통해 현대 지식인과 리더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한다.

〈문예춘추사·각 1만2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자화상을 통해 본 나의 진짜 모습

‘그림 속에서 나를 ...’

김선현 지음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미술치료를 공부한 김선현(차의과대학 미술치료학과 교수)씨가 그림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그림 속에서 나를 만나다’를 펴냈다.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틀로 삼은 건 작가들의 ‘자화상’이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화상은 ‘깊은 자기 고백의 장이 될 수 있는 내밀하고 비밀스런 사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내·외적 관찰, 자기 연민, 허세 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를 풀어 나간다.

100여점에 달하는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 단 한점만을 그린 모달리나니,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프리다 칼로까지 80여명의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한번쯤 들여다 보게 만든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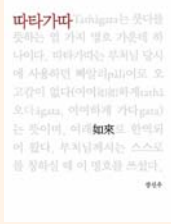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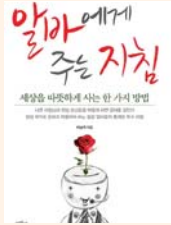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알바에게 주는 지침=‘알바비는 받아야 한다’, ‘알바 주인(착한 주인)과 알바 쥐(나쁜 주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손님(나쁜 손님)은 반드시 응징하라’, ‘정한 틀기를 바라지 마라’, ‘나서서 일하지 마라’, ‘시간 약속 지키지 마라’, ‘짱 박힐 곳을 찾아라’, ‘주인의 약점을 잡아라’, ‘새를 입에 달고 살라라’. ‘알바에게 주는 지침’에서 저자 이남석씨가 정리한 ‘세상 모든 알바에게 주는 유니버설한 지침’이다. 이 정도면 심히 불량스럽다. 약간의 육두문자까지 포함해 아브라이트 체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평사리·1만3000원〉

▲따타가따=불교에 관심이 많은 영화감독 장선우씨가 시나리오 형식을 빌려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전한다. ‘따타가따’는 ‘여래’(如來)를 뜻하는 말로, 붓다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로 꼽히는 아난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반열반(般涅槃·진정한 열반)에 들기까지 40여 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춰 많은 사람이 붓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깨달음에 다가갔는지를 이야기 형태로 부드럽게 풀어간다. 〈물고기북스·2만2000원〉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자연재배작물을 유통하는 ‘내추럴하모니’의 대표로 자연친화적 삶을 주제로 강연해온 저자가와나 히데오가 전하는 ‘자연재배’에 대한 조인을 담았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연재배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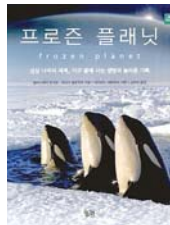


▲제주오름 걷기여행=제주도 토박이인 문신기·문신희 형제가 1년 6개월동안 오르내린 60여개의 오름 중 34개의 오름을 엄선해 100여장의 사진과 함께 엮었다.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각 지역을 대표하면서 풍경이 매혹적이고 접근성도 좋은 오름을 소개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미디어·1만6000원〉

얼어붙은 땅, 북극곰과 펭귄 세상에 무슨 일이...

‘프로즌 플래닛’

BBC 자연다큐 팀 지음



얼음 아래 은신처에 있는 고리무늬물범 새끼를 잡으려고 뒤통리로 갔다가 얼음을 힘껏 내려쳐 먹이 사냥에 나서는 북극곰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 얼음 결정이 맺힌 화산 동굴 등 생생한 설경, 범고래와 펭귄 등의 야생 생태가 고스란히 펼쳐진다.

‘프로즌 플래닛’은 영국 BBC 자연다큐멘터리팀 ‘프로즌 플래닛’팀이 4년여에 걸쳐 담아낸 극한의 얼음 세상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생명 드라마다.

극한의 얼음 세상에서 2346일을 보내면서 옮겨다니는데만 썰매개 33마리, 스쿠터 33대, 헬리콥터 28대, 보트 22대, 순록 12마리, 사륜 오토바이 10대, 수륙양

용자동차 5대, 쇠방신 2대를 썼다. 그만큼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극지 풍경과 극지 생물들의 삶의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프로즌 플래닛의 책임프로듀서인 앨리스터 포터필 등의 글이 덧붙여지면서 전문적인 생태 보고서이면서도 쉽게 책장이 넘어간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극지방에 끼친 영향을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얼음을 발판 삼아 사냥하는 북극곰의 경우 지난 20년간 얼음이 일찍 녹는 바람에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이 3주나 줄었고 몸무게도 15% 빠지는가 하면, 개체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공리·4만5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평등한 세상을 꿈꾼 공산주의 추락과 실체

‘코뮤니스트’

로버트 서비스 지음



평등한 지상 낙원, 가장 인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결한 이념, 공산주의가 왜 처참한 독재로 추락했을까.

‘코뮤니스트’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태동과 발전, 성공과 몰락을 전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훑으며 해답을 찾아나간다.

저자인 러시아 근현대사 권위자인 로버트 서비스 영국 옥스퍼드대 역사학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의 희망은 왜 절망이 되었나?”라는 서문에서 드러나듯 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걸쳐 공산주의 이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패했는지 허상과 실체를 낱알이 드러낸다. 한때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지난 20세기에는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공산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공산주의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저자는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전 존재한 공산주의 이념들을 고찰한 뒤 마르크스를 거쳐 레닌에 의해 완성된 공산주의 이상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 동유럽과 중국, 쿠바, 북한 등에서 공산주의의 이상과 운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확산됐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공산주의 운동이 사실상 종언을 고하기까지의 과정도 들여다본다. 〈교양인·3만6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3세기에 걸친 추리 소설 장르의 생성과 변화

‘블러디 머더’

줄리언 시먼스 지음



추리 소설 작가들의 등급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 영국의 추리 작가인 줄리언 시먼스의 ‘블러디 머더’가 번역, 출간됐다.

지난 1972년 첫 출간됐던 것으로, 저자는 수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바탕으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추리 소설의 흐름을 정리한다.

추리 소설의 아버지 에드거 앨런 포를 비롯해 찰스 디킨스, 윌리엄 콜린스, 에밀 가보리오를 통해 하나의 장르로 굳어졌고 아서 코난 도일을 시작으로 맞게 된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주춤했던 추리 소설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이끈 애거사 크리스티를 살

펴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추리 소설을 선보인 대실 해밋과 레이먼드 찬들러, ‘탐정 소설’에서 ‘범죄 소설’로의 변화를 이끈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마거릿 밀러 등을 소개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들에 대한 비평도 서슴치 않는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특정 작가에 대한 비난을 피하지 않는 등 거침없는 서술은 독자들에게 역사책 이외의 비평서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책 말미에 도로시 L. 셰이머스, 엘리리 린 등이 선정한 걸작 추리 소설의 리스트와 골든대거 상, 에드거 상 수상작 목록 등도 부록으로 수록했다.

〈을유문화사·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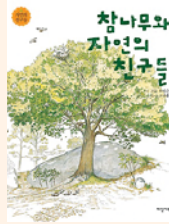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 책꽂이

▲고릴라 가족=‘고릴라 작가’로 불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신작으로, 작가가 평소 갖고 있던 유인원에 대한 애정을 모아놓았다. 고릴라·침팬지·비비원숭이·팬데믹개원숭이 등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지구상 열 종류의 유인원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유인원을 보는 착각이 들 만큼 눈빛과 표정이 살아있는 그림이 눈길을 끈다. 〈웅진주니어·1만3000원〉



▲아파트 옆 작은 논=‘불량한 자전기 여행’, ‘자존심’ 등을 쓴 동화작가 김남중의 신작. 지난 2010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한세봉두래 회원들이 개구리논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그렸다. 도심 아파트촌에서 좌충우돌하면서 1년 농사를 무사히 마친 주민들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잘 가꾼 자연유산·문화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희 출신 그림작가 김병하씨와 국립농업과학원의 박광래씨가 감수를 맡아 참여했다. 〈창비·1만1000원〉



▲소크라테스 아저씨네 축구단=세계적 축구 스타가 되고 싶은 동연이가 방과 후 축구단에 들어가 ‘소크라테스’ 감독을 만나면서 걸도습이 아닌 진정한 실력을 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그려진다. 〈주니어 김영사·9500원〉

▲나는 행복합니다=병에 걸렸지만 가족 때문에 행복한 아이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고백을 담았다. 난치병에 걸린 아이가 가족의 사랑을 통해 병에 걸렸을 때의 분노, 공포, 소상함 등 우울한 감정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다. 〈한림출판사·1만1000원〉

▲참나무와 자연의 친구들=참나무의 한해 살이를 통해 식물의 성장 과정과 자연의 이치를 들여다본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참나무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번식을 위해 자연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는지, 참나무 주변 동식물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산기획·1만1000원〉